

어린이날이 반갑지 않은 아이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지지만 여수에 거주하는 하은(여·5·이하 가명)·도빈(3) 남매는 어린이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아빠(30)·엄마(25)가 예전에 약속했던 나들이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하은이 아빠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은이 남매도 아빠가 아프다는 걸 잘 안다. 엄마는 매일 병원에서 아픈 아빠를 돌보고 있다.

하은이 남매는 이번 연휴를 아빠가 누워있는 병원에서 보낼 계획이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다.

하은이 엄마는 “병원비 공휴일 가산제로 돈 걱정이 앞선다”며 “아이들이 예전처럼 어린이날 놀러 나가자며 떼를 쓰지 않는 게 더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가정의 달 5월, 임시공휴일과 연휴가 반갑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정부가 6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나들이에 나설 가

여수 하은·도빈 남매 아빠 뇌출혈 입원...병원서 연휴 보내기로
광주 10세 길영이 작년 뇌종양 수술...항암치료에 학교도 못가
소녀가장 자현이 아픈 아빠·장애 엄마 대신 생계 챙기기

광주·전남 초록우산재단 작년 3324명 지원...후원금 부족 고심

족들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숙박원과 휴양림 등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가정 아이들에게는 남일처럼 들린다.

길영(10·광주시 북구)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맘껏 뛰놀고 싶은 길영이는 지난해 10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2차 감염이 우려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이버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일한 친구는 홀로된 엄마(39)와 동생(여·8) 뿐이다. 다른 친구들이 놀이동산을 찾을 어린이날, 길영이는 집에서 엄마, 동생과 함께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

어머니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꿈 많은 18살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자현(여·18)이는 이를 챙길 겨를이 없다. 자현이가 아빠(45)·엄마(44)를 대신해 가장이 된 것은 지난 3월. 아빠에게 갑작스런 간경화가 찾아오면서부터다. 지체장애 3급의 엄마는 생계를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는다.

자현이는 최근 아빠에게 간을 선물했다. 아빠는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부담을 주기 싫다며 수술을 한 사고 사양했지만 자현이의 설득으로 간 이식을 무사히 마쳤다. 전남의 집과 서울 병원을 오가며 아빠의 통원 치료를 돕는 것은 자현이의 몫이다.

자현이의 꿈은 미용사다. 꿈을 위해 학교와 미용학원, 병원을 오가며 공부도 하고 가장 역할도 하고 있다. 자현이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미용 분야로 유명한 프랑스에 가보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광주와 전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하은 남매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빈곤가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3324명에게 모두 39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역 후원금이 부족해 타지역 어린이재단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아이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매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늘고 있지만 부족한 후원금 때문에 제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후원 문의 061-274-0041(전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062-351-3513(광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공노 가입 투표 관여

노조원 징계 검토

광주시 이달중 인사위 열기로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광주시가 찬반투표 등에 관여한 자치구 노조원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전후해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 노조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위는 내주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구 노조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감사위는 해당 노조원들이 시 사업소 등을 다니며 투표를 독려하고 전공노 가입 투표 개시를 앞두고 시 실·과·소장의 대책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는 이에 앞서 시 본청 노조 관계자 1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바 있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간부 7명은 중징계하고 4명은 경징계하도록 인사위에 요구했다. 1명은 훈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장기교육이나 투병 중으로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조견 훈련 신기해요 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119소년단원들이 인명구조견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준영 당선인 혐의 부인...검찰 재소환 가능성

배우자도 수사 대상 될지 관심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영암·무안·신안)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인은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의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장시간 조사한 박 당선인의 방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서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그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요하다면 박 당선인을 다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박 당선인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그의 부인 최모씨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 측이 받은 돈은 총 3억6000만원으로, 박 당선인과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현재 박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당과 공천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성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세월호 7월 인양 땀 목포신항에 거치

이동거리 100km 11시간 소요 선체 정리 등 3개월 걸릴 듯

세월호가 오는 7월 인양되면 목포신항에 놓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인양현장과 100km 거리에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선체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수심(12m),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현장작업에 필요한 부지면적(10만㎡),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세월호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수심 6m, 상재하중 ㎡당 2.72t, 부지면적 2만㎡ 이상을 갖춰야 한다.

목포신항 철재부두에는 미수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고,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가 설치된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해 우선 선체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류 처리 등 작업을 진행한 뒤 사고고인원을 규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선체 정리 등에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목포신항 철재부두 사용료로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는 중국 상하이셀비지사가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까지 100km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약 1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목포신항 철재부두·컨테이너부두·석탄부두, 광양항 울촌부두, 진도항, 조선소 2곳 등 모두 7곳의 후보지를 놓고 선체 거치장소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목포신항과 함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양항 울촌부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인양현장과 거리가 240km로 멀고,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거치장소로 선정되지 못했다.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당 1t)이 낮아 기준에 미달했다. 목포신항 울촌부두는 상재하중(㎡당 1.5t)을 충족하지 못했고, 컨테이너부두는 전용 사용이 어려워 거치장소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체 정리 등에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목포신항 철재부두 사용료로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재 56%가 담배꽂초 투기 등 부주의 탓

전남도소방본부 9년간 분석 5월엔 주말·휴일 많이 발생

5월에는 특히 주말과 휴일에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2만1132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5월에는 모두 1775건(8.4%)의 화재가 발생해 124명의 사상자(사망 42명 부상 82명)와 15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순천시 11.3%(201건)로 가장 많았고, 진도군이 1%(19건)로 화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나들이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22.3%(396건)로 가장 많았고, 시

간대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절반 가량인 47.5%(843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는 한밤중인 밤 12시에 27.4%(34명)로 가장 많았고 오전 5시~7시 사이에는 발생률이 0.8%(1명)로 가장 낮았다.

화재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 및 담배꽂초 투기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55.7%(989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과실이 20.6%(366건)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들어 9년간의 화재통계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소방활동을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화재 발생률이 16.9%(193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들 대기업 취업시켜 줄게” 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고소됐다.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68)씨는 지난 2012년 5월 순천에서 A씨에게 “아들을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

명에게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100만원을 갠 혐의.

○...이씨는 “이종사촌 동생이 여수산단 대기업 부사장으로 있어 힘을 써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경찰은 “이씨가 범행 후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수시로 바꾼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 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처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점 ▶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